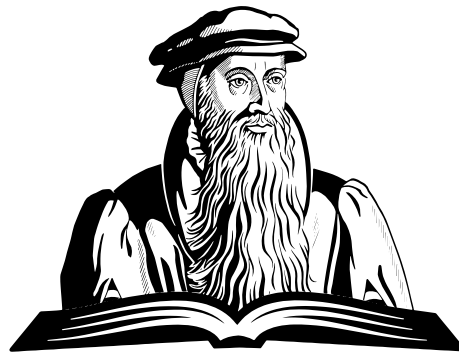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19: 예언자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19

예언자

강의 주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불러 심판을 선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섬기시는 구주를 바라보라고 부르셨습니다.

본문: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 (히브리서 1:1-2a).

강의 스크립트 19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메시지는 마이크를 통해서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 마이크 자체는 아무런 메시지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의도하는 청중들의 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나오는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는 절대로 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짐을 그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담대하고, 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감된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섬겼습니다. 이 영감된 계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과 더불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지자였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주신 직분이 가진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주요한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관련하여 그들이 수행했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에 관해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약성경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에 대한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바로 전 강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기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직의 지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데, 우리가 바로 전 강의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은 시기의 유다와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강의에서는, 그들의 포로상태를 둘러싼 예언적 메시지와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으로 말하는 대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감된 입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와 예언을 오로지 미래의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지자를 너무나 좁게 정의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당대의 세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마다 그들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은 파수꾼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다시 외치고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약속과 의무로 다시 돌아오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11:6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모든 성경적 언약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에덴동산에서 맺었던 행위언약과 노아언약과 모세언약과 다윗언약으로 돌아가는 외침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언약과 다윗언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은 영감된 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보았듯이, 여러분들이 예언서와 역사서와 시편에서 그들의 예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영감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처음 예언할 때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이전 말씀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지서에서 발견하게 될 연결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수기12:6,8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언약을 하나님에게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기초 위에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던 구약의 두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여러분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5:17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목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좀 더 뒤로 가서 마태복음22:40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13:15, 27은 매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에 대한 율법을 읽고 설명하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와 위협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13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만 골라서 했습니다. 예레미야6:14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미가3:5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요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전 강의에서 제가 드렸던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선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을 잘 알아야 하는데 특히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지 아니면 남쪽 유다 사람들인지 그것도 아니면 앗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 외쳤던 나훔선지자나 에돔에게 말했던 오바다 선지자와 같이 이방인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들과 그들이 섬겼던 시대를 바로 연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조각으로 나뉘어진 구약의 신학을 하나로 만드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초기 선지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엘리야, 엘리사와 다른 선지들을 비롯해서 이사야, 호세아, 미가, 아모스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과정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 그 분에 대한 계시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줄 그들이 알리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구절이 에스겔서에서만 70회 이상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섰던 유명한 이야기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상18:37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선지서 전체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40:9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사야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장 전체는 여호와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강의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모든 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며, 순종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경우 당할 결과에 대한 경고도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어둡고 우울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 도전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심판의 경고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도로가에 “전방에 다리가 끊어졌습니다”라고 운전자들에게 경고하는 네온싸인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짜증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마운 경고문구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자비롭게도 사람들을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이 신학적인 요점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요나가 이 메시지를 자기 백성의 원수에게 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회개합니다. 요나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한 후인 4:2 말씀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심판의 메시지는 자비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14:25로 돌아가 봅시다. 요나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셨던 역사를 그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학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예언적인 경고가 니느웨에게 자비로운 결과를 주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선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33:11을 통해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이 시기에 가장 자주 저질러졌던 범죄인 우상숭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꽤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요점입니다. 선지자들은 우상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언약적 표현입니다. 결혼의 이미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창조 때에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내산에서 율법 곧 십계명이 수여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되고 제일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철저히 사랑하라고 하실 때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배타적인 관계가 성립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제2계명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34:10, 14과 같은 곳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구속한 아내인 자신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와 질투어린

사랑은 그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사야는 반복적으로 다른 누구도 없고 다른 신은 없다고 언급하는 가운데 이 사항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발전시킵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면 이사야43-46장을 보시고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이것이 결혼에 관한 표현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고 버렸을 때, 그들은 끔찍한 영적인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이 주제는 선지서의 저변에 흐르고 있고 호세아서는 바로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예레미야서 특히 2장과 3장을 살펴보세요. 만약 에스겔서에서 이에 대한 소개를 발견하고 싶으면 에스겔16장, 이사야57장과 같은 곳도 보세요. 성경은 영적 침체에 대하여 영적인 매춘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백성의 신랑이신 하나님께 정당하게 속한 것을 취하는 것이며 다른 연인인 우상과 더불어 사악하고 일그러진 영적인 간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불쾌해하시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런 생생한 이미지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피하거나 약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이지만 그 원인, 곧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원인은 의롭고 신실하신 남편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 요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볼 것은,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역시 오실 메시야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이 기름부음을 받으신 이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박국3:13).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와 형통하게 될 한 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23:5). 그 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며 (사7:14)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게 될 것입니다 (사9:6). 그 분은 이새의 줄기이며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신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반드시 읽어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한 선지서의 본문들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들을 신약성경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하는 이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신약성경의 성취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자신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베드로전서1:10, 11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만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신명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신명기 18:18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저 앞에 있는 신약성경을 펼쳐보면 사도행전3:22-24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신명기의 이 본문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이 나타내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 곧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은 모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신 메시야 혹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소요리문답24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직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되고 비참한 상태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신자의 삶에서 나오는 감사함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1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1절과 2절의 첫부분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납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진리 (요14:6) 말씀 혹은 로고스 (요1:1) 복음 전달자 (눅4장) 구약성경의 수여자 등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에서도 계속 선지자로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설교되는 것을 듣고, 또 성경을 노래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 신약성경에 선지자직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신약의 선지자들과 그들이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신약성경의 계시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감된 사도들과 더불어 신약교회의 기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베소서2:20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신약의 선지자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계시의 중단과 함께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직접적인 계시는 그분의 완전하고 충분하며 영감된 성경에 한정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1:19-21에서 성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보다 확실한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중인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선지자들의 위협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선지자직은 중단되었지만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거짓된 선생들은 계속해서 현대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7:15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십니다. 신약성경은 참된 신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라고 요청하는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이런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가 들리는 모든 곳에서 거짓선지자들의 가짜 메시지에 대한 책망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4:1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2:1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선생들은 보통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기에는 좋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짓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만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빛을 주장하면서 올 때 여러분은 그것이 오래된 오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연단을 견뎌낸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신조와 개혁파 신앙고백들은 이 오래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오류를 분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1:8,9은,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가르침은 반드시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5:21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사도행전17:11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요한계시록2:2에서 에베소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은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분을 보증하여 디모데후서2:15에 나오는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식에 있어서 진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코스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지겠지만, 예수님도 마태복음12:39에 나오듯,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언급하심으로서, 신약성경에도 영적인 간음

에 대한 사상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순결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곧 이상승배에서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11:2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야고보도 역시 야고보서4:4,5에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현대교회를 위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의 이 표현이 가진 방대한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승배의 위협은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승배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은 영적인 간음의 위험에 대하여 신약교회에 경고하는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한 채로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울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불러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4:4에서 가르치셨던 교훈과 동일한 교훈을 선지자들에게서 배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음 강의에서는, 바벨론 포로에 관한 예언적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